



사직공원 전망타워

## “금요일엔 사직공원에 공연 보러 오세요”

공연창작소 ‘아라리연’  
사직공원 문화예술공간 활용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트퍼즐 인 사직’ 펼쳐  
남독극·인형극·국악 등 다채  
모든 공연 관람료 무료

광주 사직공원은 푸른 숲과 더불어 600년 역사를 지닌 사직단, 높이 35m 전망타워 등이 어우러지며 자연과 문화유산, 현대 건물들이 퍼즐처럼 얹혀있는 곳이다. 젊은 공연창작 그룹 ‘공연창작소 아라리연’(대표 황민형)이 조각조각 흩어진 사직공원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해 즐거운 축제장 ‘아트퍼즐 인 사직’을 펼친다. 오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주 금요일(오후 8시) 사직단 등 사직공원 곳곳에서 남독극, 인형극, 국악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각 공연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리며 사회자가 사직공원 역사와 해당 공간 특성, 유래를 설명해주는 아트토크콘서트가

결연여진다. 26일 첫 번째 행사는 사직단에서 문화예술공간 ‘바람꽃’이 무대에 올라 남독극 ‘5월의 신부’로 축제 막을 연다. ‘5월의 신부’는 1980년 5월 광주, 광천동 분당의 주민심부와 시민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전한다. 6월2일에는 사직단 옆 예술 공간 ‘빈집’에서 극단 ‘도깨비’가 인형극을 진행한다. 도깨비는 공원 설치미술품을 활용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세번째 공연(6월9일)은 국악으로 물들인다. 전망타워 야경을 배경으로 프로젝트 그룹 ‘온비’가 국악콘서트 ‘전망타워’ With 국악’을 진행한다.



이어 예술공간 ‘흔적’에서 광주 영화제작사 비파쳐컴퍼니가 사직공원을 배경으로 만든 옴니버스 영화(6월16일)를 상영한다. 6월23일에는 어쿠스틱밴드 ‘멜팅 그루브’가 나서 팔각정 구조물 앞에서 ‘팔각정 With 어쿠스틱 밴드’ 공연을 하며 초여름 밤을 낭만으로 적신다. 6월30일 마지막 무대는 전망타워와 옛 팔각정 부지에서 ‘아라리연’을 비롯해 전체 공연팀들이 참여하는 ‘흐르는 풍경 With 어울림’을 즐길 수 있다. 판소리, 어쿠스틱 밴드, 남독공연, 인형극, 영화를 연극으로 녹여내 사직공원을 이야기하는 장소특정적 공연이다. 주최측은 스티커투어 이벤트를 마련해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각 공연을 마치면 관람객들이 아트스티커를 지급한다. 6개 공연 스티커를 다 모아 배포된 지도를 완성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황민형 대표는 “광주시민은 누구나 사직공원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며 “이번 행사는 사직공원이 품은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한 공연으로 시민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퍼즐 인 사직’은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8208-052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수림미술상’ 첫 번째 수상자 정혜련 작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수림문화재단이 올해 제정한 수림미술상(상금 1000만원)의 첫 번째 수상자로 부산 출신 정혜련(40·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재단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하정웅 청년 빛 작가전’에 참여한 작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작업실 현장 방문,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부산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정혜련 작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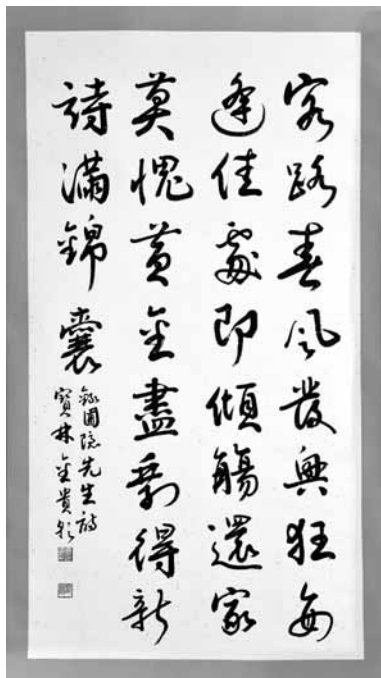


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와 나무로 다양한 설치작품을 만들어왔다. 2008년 하정웅청년작가상을 받았고,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진작가로 선정됐다. 정 작가에게는 10월 26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수림문화재단 내 하정웅 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 보림 김귀채 작가 팔순 기념전

#### 6월 6일까지 임소운 갤러리

절제된 감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있는 보림 김귀채 작가가 팔순을 맞아 임소운 갤러리(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6월 6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예 65점과 문인화 49점 등 총 114점을 선보인다. 진도 출신 김 작가는 윤아 길덕남, 맥당 한상운 등을 사사하고 공직생활 은퇴 후 20여년간 붓을 들어왔다. 전서와 초서, 한글 서예를 비롯해 문인화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호남가 해설’과 ‘雨中傳句’(우중독구), ‘高峰 奇大升(고봉기대승)의 시’ 등을 통해 서예의 매력을 전한다. 또 수묵담채로 그린 ‘늦은 봄 호수의 정경’, ‘여름의 풍요’, ‘난향가득’ 등 서정적인 색채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회화 작품도 문인화도 함께 출품한다. 김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등에서 특·입선을 했다. 현재 소치 미술대전, 남도 서예·문인화 대전, 대한민국 다항예술제 초대작가·



포은 정몽주 시

심사위원, 대한민국 기묘미술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03-88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문화관광재단, ‘르네상스 탐사단’ 여행작가 모집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르네상스 탐사단-신통방통’(탐사단) 참여 여행작가를 추가모집한다. 탐사단은 여행전문기자, 파워블로거, 인터넷방송 BJ, 유튜브 등 총 6팀으로 구성된다.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전남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여행

콘텐츠를 신문, 잡지 등 매체에 기고가 가능한 전문여행작가여야 하며 이번달 26일까지 이메일(rmfls1338@jact.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탐사단에서 활동할 경우 총 6회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재단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작가추천 여행코스 코너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1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전현의 문화카레

인구 40여만 명의 가나자와시는 일본에서 내로라 하는 문화도시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인프라는 다소 밀릴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문화지수만큼은 남부럽지 않다. ‘한집 건너 예술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다. 그렇다고 가나자와 시민들이 처음부터 문화를 가까이 했던 건 아니다. 지난 1990년 대 초, 옛 방직공장을 시민들의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시민예술촌이 문을 열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프로페셔널 예술가들을 위한 갤러리나 공연장은 많지만 문화애호가들을 위한 연습실

과 비슷한 곳이 있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성남아트센터 ‘사랑방 문화클럽’이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의 일상화’를 내걸고 출범했다. 당시 성남시에는 1100여개에 이르는 문화예술동호회가 활동했지만 연습실이 부족한 탓에 정기적으로 기량을 닦는 모임이 많지 않았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60여 개 빈 공간을 시비로 임대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했다. 과거 보조금을 아마추어 동호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 반갑다! ‘아르코@광주’

이 없는 현실에 주목한 가나자와시가 방직공장을 매입해 개방한 것이다. 몇해 전 취재차 방문했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소문 그대로 문전 성시였다. 평일 낮인데도 시민예술촌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연극연습을 하는 주부들로 북적였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밴드연습이 한창이었다.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스튜디오 덕분인지 이들은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열정적인 연주를 펼쳤다. 시민 예술촌은 1년 365일 운영되는 열린 공간이다. 6개의 스튜디오에는 오케스트라, 밴드, 연극 등 각 장르의 예술활동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이 비치돼 말 그대로 ‘물만 오면 되는’ 시스템이다. 직장인들의 퇴근 후 이용을 배려해 하루 24시간 개방하고 가나자와 시민이면 누구나 3개월전 예약을 통해 6시간에 1000~3000원이라는 ‘착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관(官)에 의존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비판에 따라 연습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랑방 문화클럽에 소속된 동아리들은 자생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표방한 ‘사랑방 클럽축제’까지 창설해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그런 점에서 다음달 개관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아르코@광주)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 광산구가 소촌아트팩토리 부지(1031㎡)에 대연습, 중연습실, 다목적 공간인 리딩룸(reading room), 커뮤니티 카페 등을 갖춘 창작공간과 연습장을 꾸민 것이다. 332㎡에 이르는 대연습실은 지역에선 최대 규모다. 그동안 변변한 연습공간이 없어 건물 지하실을 전전하거나 값비싼 임대료를 내느라 팍팍했던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아르코@광주’가 삭막한 도시에 희망바 이라스를 퍼뜨리는, 드림팩토리라 했으면 좋겠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리듬과 함께 떠나는 GO GO 아프리카’ 수강생 모집

광주 광산구가 아프리카 리듬을 감상하고 배우는 ‘리듬과 함께 떠나는 GO GO 아프리카’에 참여할 1기 수강생 100명을 2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화예술공동체 ‘울림’(대표 오지영)이 광산문화예술화관과 함께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7일 개강하는 강좌에서는 아프리카 문화배우기, 아프리카 전통 악기

연주, 퓨전타악 ‘락으로’ 공연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좌는 다음달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진행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광산문화예술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ogoafrika\_@naver.com)로 보내거나 휴대전화(010-4061-8085)로 신청해도 좋다. 문의 062-960-82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 문의 010-3647-4747

상가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착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주창동 전통음식 그리고 해신도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